

강진군, 전국 최초 안전마을 구축 나선다

자율방범대 등 14개 기관 협업 마을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안전마을 구축에 나섰다. '상생 돌봄으로 하나되는 복지안전 공동체'를 실현을 위해 지역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14개 기관·단체 협업을 통해 마을 안전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제1실내체육관에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한 군동면이 안전마을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군동면민 600여명이 참석한 군동면이 전국 최초의 안전마을임을 알리는데 동참했다.

김은주 군동면 안전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군동면이 안전마을임을 선포하고 "안전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을



지난 3일 강진군이 제1실내체육관에서 안전마을 선포식을 열었다.

강진군 제공

바탕으로 상생돌봄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동면은 '상생돌봄으로 하나되는 복지안전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아, AI 기술, 마을공동체, 복지안전 리더 양성을 3대 축으로 복지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안전협의체에는 군동면, 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14개 기관 단체가 가입해,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공모사업에서 농촌형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을 제시해, 총 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군동면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복지·안전 총괄 조직 구성 △AI 안부확인 및 관제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심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안전교육 △안전 경로당 인증 프로그램

△생활위해 환경 개선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복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같은 공모사업에서 마을안전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의 안전을 돌보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14개 유관기관과 합심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맛플무안몰, 가정의달 할인 행사 지역 쌀 20% 할인 등

무안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황토랑쌀'을 20% 할인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을 선보인다.

황토랑쌀은 2023년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14년 연속, 총 16회에 걸쳐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어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되어 미질뿐만 아니라 밥맛도 우수하며 농협양곡(주)무안통합미곡종합처리장 GAP 전문 시설에서 도정하여 안전성과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다.

황토랑쌀 기획전 외에도 전 품목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 지급, 사다리 타기 랜덤 쿠폰 발급·리뷰 작성 시 적립금 지급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군은 맛플무안몰 오픈을 기념하여 전 상품 20% 할인쿠폰 증정 및 햅쌀과 기획전, 톨렛 추첨 이벤트 등을 진행(예산소진 시 마감)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가정의 달 기념 기획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과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며 "특히 무안군의 우수한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여 건강한 밥상을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연 기자

청소년 끼 경연 참가 모집 영암군, 17일까지

영암군청소년수련관(관장 김형수)은 '청소년 끼 경연대회' 참가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이 될 이번 경연대회는, 25일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의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서 본선이 이뤄진다.

9~18세 영암군 청소년이 이룬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댄스·밴드·가요 등 분야 총 8팀이 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무대에 오를 수 있다.

참가 희망팀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예선 심사용 3분 이내 영상을 함께 이메일 (yayouth@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팀(061-470-1000)에서 안내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진도군, 전남도 축산정책 설명회 축산농가 30명 대상 질의응답

진도군은 최근 관내 축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도 축산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진도개축산과 3층 회의실에서 전남도 축산정책과 박도환 과장을 초청, 한우 농가와 다양한 축종의 축산농가를 위해 2024년 축산동향, 한우 송아지 명품 육성을 비롯한 전남도 축산정책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은 "전남 축산업이 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축산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전남 축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해남군이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 운영을 시작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 운영

해남군이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 운영을 시작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분수 운영 기간은 9월1일까지이며 매주 금, 토, 일 주말동안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1~12시, 오후 1~2시, 오후 3~4시 총 3회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분수대 저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바닥분수, 발담금시설, 연꽃습지, 갈대탐방로, 철새 탐조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발담금시설을 조성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원한 쉼터를 제공한다.

고천암 생태공원은 해남의 대표적인 습지인 고천암의 천혜의 생태자연과 어우러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바닥분수가 개장하는 주말이면 매일 500여명이 찾는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의 물놀이 시설을 깨끗한 수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의뢰, 청소 관리 등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이용객 스스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닥분수 물놀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경찰-금융기관 간담회 지역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논의

목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목포경찰서 3층 이준규홀에서 피싱범죄(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금융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금융기관 6곳에서 참석해 최근 피싱범죄 발생 및 피해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범죄 피해 예방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경찰서와 금융기관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금융기관에서는 다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하고, 경찰은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출동하여 피해예방 및 초동조치를 통해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김범상목포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특히 은행창구에서 다액 현금 인출 시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면서, 지속적인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검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군,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1기당 최대 130만원

영암군이 오는 13일까지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영암군은 올해 설치 지원 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해 34대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벽에 부착하는 충전기와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이동형 충전기는 15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이거나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영암군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영암군민·기업·법인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등록된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한 다음, 지원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된다.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방법의 하나로 이번 보급사업을 포함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전기차 이용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